



3면
이낙연 전 총리, 제3지대 연대 시사

전주매일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음 11월 29일) 제342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학생 유출 없는 전북교육 원년”

2024년 전북교육 구상

▶ 관련기사 16면

서거석 교육감, 미래교육 특위 등 10대 과제 제시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 학령인구 유출 줄이는 것 전북자치도교육청 출범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2024년을 학생 유출 없는 전북교육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슬로건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두말할 것 없이 학령인구 유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구 유출은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지만, 학령인구 유출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교육 때문에 학생이 면에서 읍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도민들의 간절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 받아들이겠다. 교육력을 끌어올려 학생이 찾아오는 희망의 전북교육을 만들겠다”며, 2024년 전북교육 구상에 대해 밝혔다.

세부적으로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 △국제비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확산 △학력 신장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역특화 특성학교 육성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학생 해외연수 고도화 △전북형 방과후, 돌봄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등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을 위해 올해 안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모든 교실에 스마트칠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이 수업에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9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북교육 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수업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하기로 했다. 1만9,000여명의 교사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수업혁신 연구 활동과 수업 공개, 수업 나눔을 지원하고, 오랫동안 중단됐던 연구학교 운영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인원도 보강한다.

학생들의 학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기초학력 책임제로 추진된 학력 신장은 올해도 계속된다.

서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의 학력을 키우는 게 기본”이라며 “지난해 기초학력 책임제의 기틀을 닦았다면, 올해는 학력 신장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학교에서 진단검사·과정중심평가·총괄평가가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의견을 모으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학생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생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를 시행하는 동시에 학력 신장과 총괄평가 지원을 위해 수준 높은 평가도구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학력지원센터를 통한 학력 신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부모 역량에 따라 진로 선택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과 연계한 국제에너지고, 완주 국가산단과 연계한 전북스마트팩토리고, 부안 베이커리고 등 지역 특화 미래산업 특성학교 육성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특성학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도내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특성학교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김제·부안 등 서부권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등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의지를 밝혔다.

학생 해외연수는 지난해 2,500명에서

올해 2,9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방과 후 학교와 돌봄 수준은 한 차원 높아진다. 돌봄시설이 부족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학교 밖 늘봄기관을 늘리고, 돌봄 대가자가 많은 지역에는 거점돌봄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돌봄으로 인한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전북형 방과 후 돌봄’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은 지역이 주체가 돼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특별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1월 18일은 전북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잠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내일부터 답페이크 영상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전북선관위, 총선 D-90일 맞아 선거법 안내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 제한 등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대해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답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이달 29일부터 금지된다.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포·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11일부터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3명을 지정해 AI감별반을 추가 운영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등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인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자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자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이밖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김재훈 기자

정읍 동진강 인근 야생조류 방역대 농장 이동제한 해제

전북도가 9일 정읍 동진강 주변(태인면 궁사리) 야생조류 방역대 및 방역대(10km)내 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29일 정읍시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교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확인된 이후 21일이 경과하고 방역대(10km) 내 농장(48호)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19일까지 가금농장에서 18건, 야생조류에서 3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없이 차단방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성호 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IMSIL-GUN
임실군

천만 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갑니다